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글을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이다. 이때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독자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비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독서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글의 내용을 통합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니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탐구하려는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서평 등을 참조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 읽기 목록을 만든다. 그다음에는 수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읽을지 파악하는데, 만약 읽을 글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아예 읽기 목록에서 빼거나 다른 글로 교체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탐구하려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선별한 부분을 읽을 때는 꼼꼼히 읽되,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 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글에 나오는 핵심 개념을 탐구 주제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읽기가 끝나면 독자는 글의 내용과 형식,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탐구할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한다. 자신의 관점은 읽은 글에 나오는 특정 관점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읽은 글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데, 이를 위해 읽은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비판력을 기를 수 있고, 여러 글쓴이의 집필 의도나 관점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추론력도 기를 수 있다. 또 여러 글을 편견 없이 읽어야 하므로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생활 환경이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복합적 성격의 사회 문제가 증가했다. 이런 성격의 사회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문학, 자연 과학, 공학, 예술 등의 지식을 통합해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역량을 기르는 독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탐구 주제를 구체화한 후에야 독서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
- ② 글들을 읽기 전에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 ③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을 때에는 형식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할 때에 다른 관점의 글도 활용할 수 있다.
- ⑤ 읽은 글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용하여 글쓴이의 집필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한 학생의 독서록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지도자에 관한 책을 검색했고, 제목과 서평 등을 보며 『군주론』, 『목민심서』, 『테레사 전기』를 골랐다. 책을 빠르게 훑어보니 『군주론』의 시민을 다스리는 부분과, 『목민심서』의 백성을 교화하는 부분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테레사 전기』에서는 탐구할 내용을 찾지 못해 아예 읽지 않기로 했다. 선별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니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반면에 『목민심서』에서는 인자하면서도 술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글을 읽고 생각해 본 결과, 내가 학생회장이 되면 인자하고 술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탐구하려는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검색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였군.
- ② 학생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읽기 목록을 책의 제목이나 서평 등을 보며 수정하였군.
- ③ 학생은 읽기로 선정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꼼꼼히 읽을 부분을 선별하였군.
- ④ 학생은 두 글을 읽은 후에 탐구 주제와 관련한 두 글쓴이의 관점 차이를 비교하였군.
- ⑤ 학생은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며 탐구 주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였군.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정신적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독자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복합적 성격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독자가 독서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독서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독자가 한 편의 글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그 글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독자가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면 렌즈를 통과한 광선은 모이게 되고 (-)구면 렌즈를 통과한 광선은 퍼지게 되는데, 이때 광선을 모이게 하거나 퍼지게 하는 정도를 ㉠굴절력이라고 한다. 굴절력은 무한히 멀리서 렌즈로 들어온 광선이 렌즈를 통과할 때 렌즈로부터 형성된 초점과 렌즈 사이의 거리인 초점 거리를 역수로 표시하고, 디옵터(D)를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무한히 멀리서 렌즈로 들어온 광선이 (+)구면 렌즈를 통과한 후 1m 떨어진 거리에 초점이 맺혔다면 이 구면 렌즈의 굴절력은  $+1D(=+\frac{1}{1m})$ 가 된다.

눈은 해부학적으로 크기가 정해진 굴절계로,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초점을 맺음으로써 시력을 형성한다. 눈은 굴절력이 일정한 각막과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 수정체에 의해 초점이 망막에 맺히도록 하는데, 굴절력이 부족하거나 물체가 눈앞 가까이 있을 경우 초점을 망막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정체의 굴절력이 커지는 조절 작용이 일어난다. <그림>에서 정시는 조절 작용이 없는 무조절 상태에서 무한히 멀리서 눈으로 들어온 광선의 초점이 망막에 맺히는 경우(a)로, 이때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다. 비정시는 무조절 상태에서 무한히 멀리서 눈으로 들어온 광선의 초점이 망막의 앞쪽(b) 혹은 망막의 뒤쪽(c)에 맺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눈의 구조와 광학적 특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 굴절력이 다르다. 그래서 정시와 비정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수치로 만든 모형안이 이용된다. 모형안에서 정시는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 0D인 무조절 상태에서 +59D의 눈 굴절력\*을 가지며, 0~+14D인 수정체의 조절량에 따라 눈 굴절력은 +73D까지 커질 수 있다. 비정시는 초점이 맺히는 위치에 따라 근시와 원시로 구분된다. 모형안을 기준으로 근시는 눈 굴절력이 +59D보다 커서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게 되는 경우이다. 반면 원시는 눈 굴절력이 +59D보다 작아서 초점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히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정시는 (±)구면 렌즈를 통해 정시로 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안을 기준으로 할 때, 눈 굴절력이 +61D인 근시는 -2D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면 눈 굴절력과 (-)구면 렌즈의 굴절력이 합해져 +59D가 되기 때문에 정시로 교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눈 굴절력을 정확히 검사하는 것은 비정시를 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제 임상 검사에서는 정시인지 비정시인지 판정하기 위해, 무한대 거리의 물체를 주시하도록 하며,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주시하는 물체의 거리가 5m 이상이면 무한대 거리로 보며,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무법이 사용된다. 운무법은 ㉡눈앞에 (+)구면 렌즈를 대어 초점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구면 렌즈를 순차적으로 덧대어 가면서 최대 시력을 얻는 최소의 (-)구면 렌즈 값과 운무법에 사용된 렌즈 값을 합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판정한다.

\* 눈 굴절력: 각막의 굴절력과 수정체의 굴절력을 포함한 눈 전체의 합성 굴절력.

##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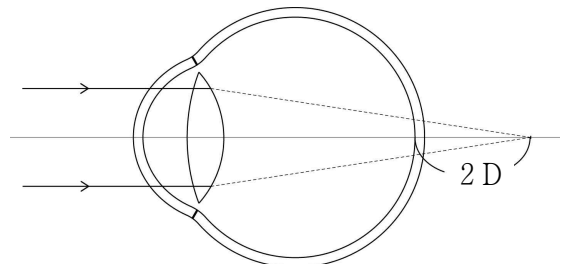
- ① 각막의 굴절력은 일정하지만 수정체의 굴절력은 변할 수 있다.
- ② 수정체의 조절 작용과 상관없이 초점이 망막에 맺힐 때 최대 시력이 형성된다.
- ③ 사람마다 눈의 구조와 광학적 특징은 다르지만 눈 굴절력은 +59D로 일정하다.
- ④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 근시에는 (-)구면 렌즈, 원시에는 (+)구면 렌즈가 필요하다.
- ⑤ 주시하는 물체가 눈앞 가까이로 다가오면 초점을 망막에 위치시키기 위해 조절량은 커진다.

##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굴절력이 작을수록 초점 거리가 짧아진다.
- ② 굴절력이 커질수록 초점 거리의 역수도 커진다.
- ③ (+)구면 렌즈는 굴절력이 클수록 광선을 퍼지게 한다.
- ④ 무한히 멀리 있는 물체를 주시하는 눈의 굴절력은 0D이다.
- ⑤ (-)구면 렌즈는 (+)구면 렌즈보다 광선을 모이게 하는 정도가 크다.

## 6.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아래 눈은 모형안을 기준으로 무조절 상태에서 눈 굴절력이 +57D인 비정시이다.



- ① 수정체의 조절량이 +2D일 때 초점이 망막에 위치해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겠군.
- ② -2D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었다면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군.
- ③ +4D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어 근시 상태로 유도하였다면 -1D인 구면 렌즈를 덧대어도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군.
- ④ +5D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어 무조절 상태를 유도하였다면 -3D인 구면 렌즈를 덧대었을 때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겠군.
- ⑤ 근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눈앞에 댄 (+)구면 렌즈와 최대 시력을 얻은 최소의 (-)구면 렌즈를 합한 렌즈 값은 +1D가 되겠군.

## 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시를 근시로 유도하기 위해
- ② 원시를 정시로 유도하기 위해
- ③ 근시를 정시로 유도하기 위해
- ④ 근시를 원시로 유도하기 위해
- ⑤ 정시를 원시로 유도하기 위해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 법 규칙이 문체없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주목하여 법 해석에 대해 논의한 인물이 법학자 ㉠ 하트이다.

하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개방적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개방적 구조**란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트는 법 규칙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이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어서 규칙의 적용 여부가 미리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원 안의 조용함과 평화를 위해 ‘공원에 탈 것의 출입 금지’라는 규칙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어떤 사례가 ㉡ 들어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결정한다. 이때 작성자의 머릿속에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명백한 사례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장난감 자동차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미리 구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공원의 조용함과 평화가 장난감 자동차를 사용하여 즐거워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예견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의 규칙만으로는 그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트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법 규칙은 대부분 확정적인 의미의 규칙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판사는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의미를 확정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 법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판사는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 탈 것의 의미가 불확정적일 때만 비로소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풀러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주사위 노름을 가르친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는 발화자의 당초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놀이가 가리키는 대상에 주사위 노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들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풀러는 하트가 법 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법 규칙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미리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을 해석할 때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 ③ 하트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 법 규칙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았다.
- ④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 ⑤ 하트는 법 규칙의 맥락과 목적이 법 해석에서 언제나 고려된다고 보았다.

9. **개방적 구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 규칙은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 ② 대부분의 법 규칙은 언어로 구성되므로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 ③ 개방적 구조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④ 개방적 구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미리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⑤ 법 규칙은 핵심적인 사례에서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어서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10. ㉠, ㉢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K국에는 “박물관에서 먹을 것 섭취를 금지한다.”라는 규칙이 있다. 어느 날 A는 박물관에서 약을 먹다가 적발되자, 약은 금지되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판사에게 주장하였다.

- ① ㉠은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으로 규칙에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계에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은 규칙을 만들 때 약의 섭취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은 금지되는 ‘먹을 것’에 약이 포함되는지를 그 규칙의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은 규칙에 의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하여 확정했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1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이 쑥 들어갔다.
- ② 수업 종이 울려서 교실에 들어갔다.
- ③ 오래된 신발이 안 들어간다.
- ④ 내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 ⑤ 고래는 포유류에 들어간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등 소위 미적 속성이라 ㉠ 간주되는 것들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 즉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이 있다.

㉡ 미적 실재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재한다.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미적 실재론은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운명 교향곡’의 실제 속성 중 하나가 장엄함이며 우리 모두 그것을 지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중 일부가 ‘운명 교향곡’을 두고 무기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미적 실재론은 우리 중 일부가 그들이 가진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운명 교향곡’의 실제 속성을 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적 판단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 형성했고, 그 결과 그 음악에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적 판단의 일치가 일어난 것은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적 반실재론은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를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은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이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을 정당화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느 입장도 이유를 댈 수 없다고 대답하지는 않는다. 미적 판단에 관한 진술은 일종의 명제라는 점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나)

‘수반’이라는 개념은 어떤 속성들과 다른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윤리학 분야에서 ㉤ 논의되기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다. [수반론]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자연적 속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아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비미적(非美的)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미학자들이 나타났다. 시블리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고,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다. 미적 수반이란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적 수반론은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고 본다.

미적 수반론은 미적 판단의 정당화 문제에 대하여 미적 실재론자들에게 단서를 ㉦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적 실재론자는 ‘운명 교향곡’은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수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장엄함이 느린 리듬이나 하강하는 멜로디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그 비미적 속성이 ‘운명 교향곡’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란 대상의 미적 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고, 그 불일치가 감상자들이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미적 실재론자들이 미적 수반론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재론자들에게 이런 ㉧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미적 반실재론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미적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반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 쉽지 않게 된다. 각자마다 다른 미적 판단이 각각 참일 수 있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미적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미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분이 미학 논쟁에서 중요한 까닭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가)는 통시적으로 두 이론의 논쟁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공시적으로 두 이론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서로 다른 견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특정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이론가들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이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의 불일치는 누군가의 지각적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은 ‘운명 교향곡’에 대한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면 장엄함은 ‘운명 교향곡’에 실재한다고 본다.
- ③ ㉢은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은 ‘운명 교향곡’에 실재하는 미적 속성을 지각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은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의 일치는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운명 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은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본다.

14. 수반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는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 ② 도덕적 속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더라도 동일한 도덕적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도덕적 속성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본다.
- ④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이 발현되고 실현되기 위한 기반과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본다.
- ⑤ 두 사람이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하더라도 그들의 도덕적 속성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15.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길동과 장금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감상하였다. 이 작품은 직선들의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길동은 이 작품을 본 소감으로 생동감을, 장금은 지루함을 제시했다.

- ① 길동이 시블리의 입장을 따른다면, 생동감이나 지루함은 작품의 미적 속성으로 색이나 직선들은 작품의 비미적 속성으로 구분하겠군.
- ② 장금이 미적 반실재론자라면, 길동과 자신은 미적 감수성이 다르므로 길동과 자신의 소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겠군.
- ③ 장금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재론자라면,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길동이 미적 수반론을 지지하는 미적 실재론자라면, 생동감이 직선들의 교차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그 비미적 속성이 작품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하겠군.
- ⑤ 길동이 미적 실재론자라면, 자신이 작품의 미적 속성인 생동감을 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장금을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군.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면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②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면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 등이 충분함에도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③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면 비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④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수반 관계가 존재한다면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 쉽다.
- ⑤ 어떤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특정 비미적 속성이 존재한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설명하기 쉽다.

1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 ② ㉡: 완전히 다 이룸.
- ③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④ ㉣: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
- ⑤ ㉤: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 내 언제 무심하여 입에게 득죄했나  
입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음란하다 이르로세

(중략)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오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곱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놀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뚫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일당우불에 수답이 여향하니\*  
가까이 다가앉아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멀리서 들려오는 어촌의 닭 울음에 긴 잠을 깨어나니  
㉡ 우리 입 금옥(金玉) 같은 음성이 귓가에 의연하고  
우리 입 어로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유한한: 조용하고 그윽한. 여성의 훌륭한 인품을 뜻함.

\* 장문부: 한나라 진 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황금 백 근을 주고 얻었다는 글.

\* 일당우불에~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

\* 가까이~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한나라 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 어로향: 임금의 향로에서 나는 향기.

(나)

임 그러 생각하고 푸른 요 짙고 꿈을 꾸니  
외로운 영혼이 입에게 가 있더니  
살뜰히 원수의 꾀꼬리로 말 못하고 깨었네 <제1수>

깨어 일어나 앉아 꿈 일을 생각하니  
끊임없는 눈물이 두 볼에 진주로다  
이 진주 진짜 진주와 저 임의 집에 보내고저 <제2수>

보내거든 아실까 내 정성 아실까  
임도 나 같으면 일정 내 뜻 아시려니  
만일에 내 뜻과 다르면 분명 대소(大笑) 하리라 <제3수>

대소 마시고 내 정성 아소서  
무슨 장부로 이리도록 이러커니  
얼굴은 옛 얼굴 있어도 일촌간장은 썩은 지 오래거다 <제4수>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이 없게 되게

㉢ 죽어 진토(塵土)가 되다 이 마음 썩을손가  
두어라 정성이 감천하야\* 지하에 가 보새이다 <제5수>  
— 이복길, 「오련가」 —

\* 감천하야: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다)

젊은 시절에는 과연 나도 허황된 명성을 연모하여,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얻은 ㉣ 명성이란 겨우 송곳 끝만 한데 쌓인 비방은 산더미 같았으니, 매양 한밤중에 스스로 반성하면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명성과 실정의 사이에서 스스로 깎아내리기에도 겨를이 없거늘, 더구나 감히 다시 명성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명성을 위한 벗은 이미 나의 안중에서 떠나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이익과 권세라는 것도, 일찍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요. 대개 사람들은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지, 제 것을 털어 내서 남에게 보태 주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명성이란 본시 허무한 것이요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어서, 혹은 쉽게 서로 주어 버리는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권세에 이르면 어찌 선뜻 자기 것을 양보해서 남에게 주려 하겠습니까.

그 길로 바빠 달려가는 자들은 흔히 앞으로 엮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기 마련이니, ㉤ 한갓 스스로 기쁨을 가까이 했다가 옷만 더럽힌 셈입니다. 이 역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비열한 논리라 하겠지만, 실상은 분명 이와 같습니다. 또한 진작 형에게서 이런 충고를 받은 바 있어, 이익과 권세의 이 두 길을 피한 지가 벌써 십 년이나 됩니다.

내가 명성·이익·권세를 좇는 이 세 부류의 벗들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눈을 밝게 뜨고 이른바 참다운 벗을 찾아보았더니, 대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벗 사귀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벗을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

하지만 어찌 정말 과연 한 사람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 깨우쳐 준다면 비록 돼지 치는 종놈이라도 진실로 나의 어진 벗이요,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 비록 나무하는 아이라도 역시 나의 좋은 벗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내게 벗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돼지 치는 벗은 경서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어렵고, 나무하는 벗은 손님과 주인이 읍양하는\* 대열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금을 더듬어 보면서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 만나 보아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고 말겠습니까만, 형도 이런 벗을 아직 만나 본 적이 없는 게 아닌지요? 아니면 영영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끊어 버렸는지요? 지난날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 마침 한 가닥 울적한 마음이 들어 우선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 박지원, 「답홍덕보서 제이」 —

\* 읍양하는: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하는.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상을 보는 여러 관점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제시하여 자연 풍경의 변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만나고 싶은 대상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속사미인곡」은 사대부인 작가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쓴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연군(戀君)의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겪는 시련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는데, 작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장면에 따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 속에서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된 일에 대한 억울함과 유배된 작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못 여자’가 ‘질투하’여 ‘음란하다 이르’었다고 한 것은 작가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이내 몸을’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곱어볼까’라고 한 것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옛 잘못’에 대해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라고 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시련이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눌 위하여 단장할꼬’라고 한 것은 작가가 지닌 연군의 마음이 임금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드러낸 것이겠군.
- ⑤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라고 한 것은 유배된 작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겠군.

20.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 ② <제2수>의 중장에서는 초장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③ <제3수>의 초장에서는 <제2수>의 종장에 제시된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난다.
- ④ <제4수>의 초장에서는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제5수>의 초장에서는 <제4수>의 종장에 드러난 화자의 고통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21.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닭’은 (나)의 ‘피꼬리’와 달리 꿈속에서의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② (나)의 ‘진짜 진주’에는 (가)의 ‘치마’와 달리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③ (가)와 (나)의 ‘얼굴’은 모두 화자의 처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가)와 (나)의 ‘꿈’에는 모두 현재 상황에서 화자가 갖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 ⑤ (가)의 ‘옥루’와 (나)의 ‘지하’는 죽음 이후에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22.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과장법을 사용하여 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대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이 초래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한 가치를 좇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는 박지원이 벼 사귀를 소재로 하여 홍대용에게 쓴 서간문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경험을 ‘허황된 명성을 얻모’했기 때문이라 한 것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한다고 한 것은 ‘이익과 권세’를 중시하는 당대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벼 사귀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벼를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라고 한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귀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신분이 낮은 이들조차 자신과 참된 벼 사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참된 벼 사귀에 대한 글쓴이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 것이겠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 무엄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썸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껌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24 혹은 5454번의 전화번호를 보디에 커다랗게 써 붙인 삼륜차 또는 픽업이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물들을 실은 채 속속들이 달고 있었고, 검색 유니폼의 관리인들이 요소요소마다 늘어선 채 똑같은 말들을 외쳐 대고 있었다. 일테면,

[A] “차는 현관 옆으로 바짝 붙여 주십시오!”

“호실 키는 임시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증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217동과 21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혼잡하오니 도착순대로 짐을 올리시고, 화장실 및 주방의 부착물은 248동과 249동 간에 위치하고 있는…….”

삼륜차 위에서 나는 한동안 멍청하게 흔들리고만 있었다.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과 그리고 그 협곡 사이사이마다 출렁이고 있는 입주자들의 행렬……. 그것은 실로 기이한 대조였다. 나는 무거운 압박감과 마음 붙일 곳 없는 황량함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기하학적 공간에서 **무겁게 의식**했고, 또 한편으로는 흡사 피난 행렬과도 같은 입주자들의 행렬에서 우리들의 저 은밀하고 곱팡내 나는 개인적 삶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듯한 황량함을 현기증나게 맛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냉엄한 질서와 유약한 삶 — 결코 동질적일 수 없는 이 양자의 만남이 무언가 엄청난 현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나는 무섭게 예감했다.

[B] 나는 실없는 웃음을 비실비실 흘리기 시작했다.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달라붙었던 저 여럿한 감정이 일종의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응으로, 그것이 다시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내 전신을 휘감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즐거움은 컸다. 비록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할망정 저 일반 독립가옥에서의 셋방살이와는 사정이 한결 달랐기 때문이었다. 두 개의 방과 좁은 마루와 그리고 부엌과 다용도실과 수세식 변소 하나가 전부인 열서너평의 공간이기는 했다. 하지만 바깥 계단 쪽의 문만 닫아걸면 실로 자유스러운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다.

“주인택에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것만도 마음 편해 좋겠다야.”

이삿짐을 날라 준 친구가 잘도 지적했듯이 그 열서너평의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사를 들 때마다 주인에게 각듯이 인사를 닦아야만 하던 고역으로부터 나는 풀려났고, 부잡스러운 **내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까지 몽땅 포함하여 아내의 즐거움은 참으로 커다란 것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만큼 아내는 우리가 차지한 그 열서너평의 공간에 감격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의 저 모호한 감정 — **쑥스러움**이라 할지, **부끄러움**이라 할지, 또 혹은 일말의 수치심이라고나 할지,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은밀히 숨겨 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중략)

그런대로 아내는 서서히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는 듯했다. 1주일에 한 번씩 물걸레로 계단을 닦고 공휴일 아침에는 화단의 휴지들을 주워 내며, 매월 1일엔 새마을 청소를 위해 같은 현관 안에 사는 열 세대의 주부들과 함께 합동 작업을 벌이곤 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은 이미 가가호호

의 출입문 안쪽에 나붙어 있었고, 그 밖의 공지 사항들은 반상회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시로 전달되었다. 어머니회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배구팀이 창단되고 어머니 합창단도 조직되었다. 폐쇄된 버스 정류소 부활을 위한 연판장 운동이나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 요리 강습회 또는 쓰레기통 공동 소독을 위한 회합 등 각종 모임도 빈번해졌다. 모든 정보들—일테면 부동산 시세며, 새로운 가전제품이며, 의상과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당일 슈퍼마켓의 찬거리 종류와 값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토요일 저녁엔 콩치 통조림이 동나고, 일요일 낮엔 돼지갈비가 불티났다. 앞의 경우는 다음날 야외로 행락 갈 사람들 탓이고, 뒤의 경우는 휴일에도 방구석에서만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은 단지가 죽은 듯 조용한 대신,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때 지어 단지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처음 한동안 나는 실로 기이한 눈길로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 아내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종당엔 그 동일한 가락속으로 거침없이 사랑살랑 해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실없는 웃음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유의 아파트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내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그 무렵부터였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인 첫째 녀석이 언젠가, 막 귀가한 나를 잡고 때를 썼던 것이다.

“홈런왕 사 줘 아빠. 나두 홈런왕 사 줘.”

녀석이 하두 다급하게 줄라 대는 통에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우선 구두라도 좀 벗고 보자고 해도 영 막무가내였다. 아내는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녀석과는 이미 담합이 된 모양이었다.

“도대체 그 홈런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물기가 무섭게 녀석은 밖으로 튀어 나갔다. 그리고는 금세 대여섯 명이나 되는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가 들려 있는 것이었다. 꿈쩍없이 나는 행복하고 말했다.

“야, 나도 홈런왕이다!”

나로부터 천 원권 한 장을 전리품으로 얻은 녀석은 다시 때거리들을 몰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 버렸다. 다음날 출퇴근길에서 나는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며 내닫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아파트촌의 분위기이자 속성이었던 셈인데 그 후에도 녀석은 **1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해** 왔고, 나는 또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아빠, 태극호 사 줘. 봐, 애들두 다 가졌잖어? 나도 갖고 싶단 말야, 응 아빠…….”

녀석의 이 당당한 요구를 거절할 만큼 나는 마음이 독하지 못하다. 거절은커녕, 때때로는 품절이 되어서 녀석이 시무룩하게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녀석의 상심을 달래느라 전전긍긍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녀석의 놀이 상대가 돼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꽤거리도 녀석을 끼워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파트가(街) 특유의 속성에 대해 내가 은연중에 ㉠ **두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었다.

— 이동하, 「홍소」 —

2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 ②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 ③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아파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다.
- ⑤ 아내는 독립가옥의 셋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낫다고 여겼다.

28.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들 간에 심화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들 간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의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2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② 꽤거리를 지어 다니며 타인을 따돌리는 첫째 녀석의 폭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③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④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마다 크게 상심하는 첫째 녀석의 유약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⑤ 첫째 녀석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칠 만큼 독하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70년대에 등장한 규격화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는 독립성과 편의성을 주기도 하였지만, 집단화된 생활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홍소」에는 이런 아파트의 속성과 낮은 주거 환경에 맞닥뜨린 인물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 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어머니 배구팀’, ‘어머니 합창단’ 등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집단화되어 가는 아파트 생활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을 보며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무겁게 의식’하는 것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아이들’이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고 첫째 녀석이 ‘1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다른 ‘아낙네들’처럼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내를 보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에서 ‘나’가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 상서 왈,  
“내 아해는 행여 나를 속이지 말라.”  
화 소저 대 왈,  
“소녀 어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나 속이리이까. 과연 금일에 경물을 구경하고자 누상에 올랐더니, 우연히 화산 속에 약초 캐는 두 아해를 만나매 일만 가지 기이한 일이 있사와 십여 세 된 여자 약초 캐다가 애원히 통곡하니, 듣는 자로 하여금 비감할지라. 제가 듣고 비감하와 불러와 한번 보매, 실성한 병인이로되 용모 자태와 행동거지 결코 천인이 아닌고로 소회를 여러 번 따져 물은즉, 미친 체하여 세사를 알지 못한 듯하오나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소녀 이에 좌우를 물리치고 잘 타일러 문사온즉 과연 전일 항주 추관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처사 관철의 외손이라. 여 공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청현에 이르렀더니, 간신이 유 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께하여 항주 추관을 하였더니, 도입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참화를 만나 혈혈한 어린 여자가 부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고자 스스로 제 시랑 집 천비가 되었더니, 용모 태도가 아주 뛰어나기로 제 시랑이 그 미색과 용모를 사랑하여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하니, 달리 벗어날 길이 없는지라. 거짓 미친 체하여 녹발을 흡어 옥 같은 얼굴을 가리고 몸소 약초 캐러 다니며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통곡하니, 그 정사를 살피매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이로소이다.”

화 공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왈,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아의 어진 마음이여 아름답다.  
[A]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알지 못하겠구나. 그 위인이 어떠하더냐.”

화 소저 대 왈,  
“입으로 다 아뢰기 어려우나 제가 비록 지식이 없사와 일찍 눈에 찬 사람을 보지 못하였삽더니, 이 여자가 만일 예사롭고 인품이 범상하오면 어찌 가까이 지내오리까. 현철한 덕성이 용모에 나타나고 추상같은 기질이 당대에 가장 빼어나며,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한 여인이라.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 형제자매 되어 욕됨을 깨닫지 못하오리이까. 열 번 보고 백 번 헤아려도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보았고, 여자의 수행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오나 어찌 이 같은 여중 군자와 규중 옥인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오리이까. 제 나이 젊으니 즐겨 사제지의를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의를 맺고, 소녀는 생일이 여 씨보다 수 월이 더한고로 형이 되매, 관포지교\*를 겸하고 또한 천지께 고하였사오니, 소녀가 만일 여 씨를 건지지 못하오면 마침내 세상 영욕을 홀로 참예하지 아니하오려 하오니, 부디 부께서는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화 공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왈,  
“내 아해는 진실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범상치  
[B] 아니하도다. 여 소저 규중 보옥이요, 네 또한 여중 호걸이라 이르리로다.”

화 소저가 예를 갖추어 일어나며 대 왈,  
“소녀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아뢰지 못하나이다. 혹 모친이 도우사 반드시 후일 모일 날이 있사오리니, 부께서 친히 보시면 오늘 제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으시리이다.”  
말을 끝내자 여 소저가 쓴 ㉠ 작별시를 받들어 드리며 눈물이 떨어지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바삐 받아 보니 필법이 정묘한지라. 광채 유동하여 비단 위에 금수를 드리운 듯하니, 크게 놀라 다시 본즉,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여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이 자기 여아로 더불어 비김에 한층이나 더한 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훗날 여 소저는 화 공 부부의 수양딸이 된다.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상회복과 혼약한 후, 화 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부당하게 간택된다. 이에 화 공이 상소하나 하옥되고 여 소저가 입궐해 천자에게 항변한다.

상이 또 물어 가라사대,  
“네 이제 아버지 삼년상을 마쳤거늘,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아 선왕의 예법을 어기느뇨.”  
여 소저 슬피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주 왈,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상하 귀천이 없나니, 신첩이 아비 참상을 만난 후 몸은 남의 집 종이 되고 장례 물품들을 다만

유모에게 떠나보내니, 한 번도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지 못하옵고 변변치 못한 제사마저 지내지 못하였사오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뻗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이 언제나 맺혔사오며, 하물며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사오니, 큰 죄가 몸에 실렸는지라. 어찌 삼년상이 지났다 하고 몸에 화려한 의복을 걸치리꼬. 또 상씨 가문에 병례를 갖춰 행함은 사세 부득이 화 모와 부녀지의 있을 뿐 아니라 화 소저와 사생을 같이하고자 하늘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오니, 지금 온갖 형벌로 죽이실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으사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보옵시고, 천하 태평하고 기후가 순조로움을 상서로 아시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시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아 만세를 누리리이다.**”

말을 마치고 다시 엎드려 두 번 절하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감동하시고 또한 슬퍼하사 이에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침을 일컬으시고, 즉시 화공을 풀어 주시어 복직시키고, 또 전임 항주 추관 여장이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빠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또 상씨 가문에 친지를 내리셔서 두 소저와의 혼약함을 택일대로 바빠 성례하라 하시니 만조 제신과 백성이 황상의 어진 덕을 일컬고, 두 소저의 의기 충언을 탄복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모르는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숙녀지기」 —

\* 판포지교: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 소저는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그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군.
- ② 화 소저는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군.
- ③ 여 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삼년상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④ 여 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군.
- ⑤ 천자가 여 소저의 원한을 풀어 주고자 여 소저 부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군.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대화 상대를 안타까워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그에 관한 배려심을 발휘하고 있다.
- ② [A]에서 대화 상대가 겪은 일을 염려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안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에서 특정 인물을 예찬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⑤ [A]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궁금해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사연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 소저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 대한 화 공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 ② 화 공이 여 소저에 대해 품었던 경계심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화 소저가 소개한 여 소저의 인물됨에 대한 화 공의 생각을 강화해 주고 있다.
- ④ 화 소저가 슬퍼하는 연유와 관련하여 화 공이 품었던 의혹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화 공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여 소저의 면모를 제시해 화 공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숙녀지기」는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지기’가 되어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이다. 두 주인공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인(仁), 의(義)를 구현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다. 인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타인을 보살핌으로써 구현되고, 의는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함으로써 구현된다. 두 주인공이 효를 바탕으로 인, 의의 덕목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 ① 화 소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한 데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인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② 화 소저가 여 소저의 ‘현철한 덕성’, ‘추상같은 기질’,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함을 말한 데서 그녀가 여 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지기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③ 화 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라고 말한 데서 그녀가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여 소저가 천자에게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의를 지향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⑤ 여 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 말들의 관계를 결합 관계라 한다.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유형에는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것, 용언의 관형사형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것’과 같이 ‘어느 것, 언니 것, 생각한 것’ 등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가 있는 반면, ‘가 본 데’의 ‘데’나, ‘요리할 줄’의 ‘줄’과 같이 ㉡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도 있다.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후행 요소로는 격 조사와 용언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도 있으나, ㉣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데’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지만,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의 ‘지’는 주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주어로 쓰인다. ‘요리할 줄(을) 몰랐다’, ‘그런 줄(로) 알았다’의 ‘줄’은 주로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이고 주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뿐’은 ‘읽을 뿐이다’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거나 ‘그렇 뿐(이) 아니라’처럼 보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쓰인다. 한편 의존 명사가 용언과 결합할 때는 ㉤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과 ㉥ 특정 용언과만 결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것’은 다양한 용언과 두루 결합하지만, ‘줄’은 주로 ‘알다, 모르다’와 결합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선행 요소나 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 제약 없이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와 그렇지 않은 의존 명사가 있었다. 가령 중세 국어 ‘것’은 ‘어느 거시 이 가운데 가물[어느 것이 이 가운데 감을]’, ‘奇怪한 거슬 머구며[기이한 것을 머금어]’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반면 현대 국어의 ‘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디’는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었다. 즉 ‘말 들어 든니건 디 스물 히니[말 달려 다닌 지 스물 해니]’, ‘여회연 디 헛마 다숫 히로되[헤어진 지 벌써 다섯 해로 되]’와 같이 ‘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할 수 있었고, 문장에서는 주어로만 쓰였다.

35. ㉠~㉥ 중 <보기>의 ‘바’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의존 명사 ‘바’

-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혔다.
-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바이다.
- 그것은 \*그/\*생각의 바와 다르다.
- 그것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다.
- 그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 ‘\*’는 어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6. 윗글과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달음 ㉠ 주리 업스시니이다  
[다를 줄이 없으십니다]
- 眞光이 어드우며 불곤 ㉡ 될 다 비취샤  
[진광이 어두우며 밝은 데를 다 비추시어]
- 부텃 일흠 念홀 ㉢ 썩네 이런 功德 도흔 利를 어드리오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할 뿐에 이런 공덕 좋은 이로움을 얻드리오]

- ① ㉠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② ㉠의 ‘줄’은 중세 국어 ‘것’과 달리,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③ ㉡의 ‘되’는 현대 국어 ‘데’와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의 ‘되’는 중세 국어 ‘디’와 달리,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⑤ ㉢의 ‘썩’은 현대 국어 ‘뿐’과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37.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의 [탐구 자료]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탐구 내용]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단어는 여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 두 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탐구 자료]

꽃향기[꼬탕기], 똑같이[똑까치],  
흙냄새[흥냄새], 첫여름[천녀름],  
넙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쪼리다]

- ① 꽃향기, 똑같이
- ② 꽃향기, 흙냄새
- ③ 첫여름, 넙죽하다
- ④ 첫여름, 읊조리다
- ⑤ 넙죽하다, 읊조리다

38.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우리 스무고개 할래? [자료]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무얼 생각하는지 맞춰 봐.

[자료]

높이다                  접히다                  여닫다

학생 2: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니?

학생 1: 아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 2: 그렇다면 ㉠은 아니겠군. 그러면 단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니?

학생 1: 아니,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

학생 2: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고,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졌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는 ㉢이구나!

학생 1: 맞아, 바로 그거야.

- |   | ㉠   | ㉡   | ㉢   |
|---|-----|-----|-----|
| ① | 여닫다 | 접히다 | 높이다 |
| ② | 여닫다 | 높이다 | 접히다 |
| ③ | 높이다 | 여닫다 | 접히다 |
| ④ | 높이다 | 접히다 | 여닫다 |
| ⑤ | 접히다 | 여닫다 | 높이다 |

3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동생이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다.
- ㄴ. 그는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임을 주장했다.
- ㄷ.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 ㄹ. 이곳의 따뜻한 기후는 옥수수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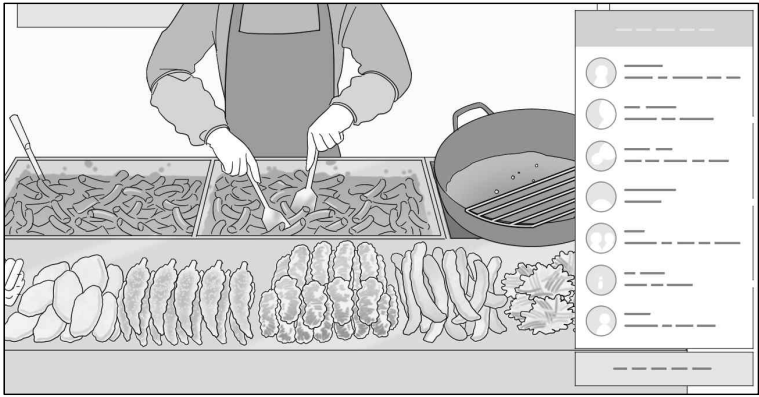
- ① ㄱ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ㄴ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ㄱ과 ㄷ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ㄴ과 ㄹ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ㄷ은 ㄹ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이 방송을 시청한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요일마다 마을을 탐방하는 ‘뚜벅뚜벅 마을 여행’의 뚜벅입니다. 지난주에는 □□궁의 동쪽에 있는 ▽▽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궁의 서쪽에 있는 △△ 마을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함께해 주세요.  
여기가 △△ 마을 입구입니다. △△역에서 딱 5분 걸렸어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카메라에 있는 소음 제거 장치를 조절해 볼게요. (방송 장비를 조작하며) 이제 잘 들리죠?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네, 다행이네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밀동만 남은 나무가 있네요. 무슨 사연이 있나 알아볼게요.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나무는 수령이 300년 된 백송으로 △△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의 역할을 해 왔으나, 20××년 태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 300년 동안이나 한결 같이 이 자리에서 △△ 마을을 지켜 주었는데, 태풍에 쓰러져 이렇게 밀동만 남은 걸 보니 안타깝네요.



자,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작은 문방구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저기 예쁜 한옥이 한 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여기 안내 표지판을 보니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래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마당이 정말 예뻐요. 이 문을 지나면 안채가 나오는데, 별로 크지는 않아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간직한 곳이네요. 아, ㉢ 그런데 벌써 배가 고파졌어요. ㉡ 우선 뭐 좀 먹어야겠어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 시장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표지판을 보니까 이 길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기 보여요. (한참 걸어간 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갔던 백송 바로 옆인데요. 괜히 땀 흘려서 왔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백송을 보고 △△ 시장을 먼저 둘러 본 다음에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전통 시장이라 그런지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아요. 참 정겹네요. 그리고 먹거리도 참 많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세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알려 달라는 분들이 많네요. ㉤ 제가 먹어 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떡볶이 맛을 보고) 다른 떡볶이보다 훨씬 쫄깃해서 식감이 좋고 매콤달콤하네요.



(나)  
지역 문화 탐구 동아리에서 △△ 마을을 탐방하기 전에 뚜벅 님 방송을 참고해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어. ㉠ 탐방 경로를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도 제시해야지. ㉡ △△ 시장을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를 넣어 주고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겠어.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음질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정보를 전달한다.
  - ② 수용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 ③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방송 진행자가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한다.
  - ④ 방송은 시각과 음성 사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안내문의 텍스트 정보를 방송 진행자가 읽어서 음성 언어로 전달한다.
  - ⑤ 일정한 주기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진행자가 지난주에 했던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댓글 창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냇달** 1일 전  
방송 잘 봤어요. 그런데 300년 된 백송이 쓰러진 걸 보니 대단한 태풍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태풍이었나요? 댓글

↳ **뚜벅** 1일 전  
20××년에 있었던 태풍 ‘○○’ 였대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된 태풍이에요. 댓글

↳ **냇달** 1일 전  
아! 고마워요. 댓글

**별총** 1일 전  
어렸을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백송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댓글

↳ **뚜벅** 1일 전  
그 백송의 씨앗을 발아시켜서 지금 어린 백송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마시길……. 댓글

↳ **별총** 1일 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댓글

① ‘냇달’과 ‘별총’은 ‘뚜벅’의 댓글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다.



- ② ‘뚜벅’은 방송에서 자신이 잘못 전달한 정보를 바로잡아 ‘낫달’에게 댓글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뚜벅’과 ‘별충’은 ‘낫달’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세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별충’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뚜벅’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별충’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마을 탐방 경로>**

△△역 5분 백송 5분 △△ 시장 10분 한옥

**<△△ 시장>**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정겨운 △△ 시장**

- ◆ 교통편
  - 지하철: X호선 △△역
  - 버스: 6X, 4X 백송 앞 하차
- ◆ 이용 시간
  - 08:00 ~ 21:00
  - 매주 화요일 정기 휴업

- ①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에는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②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탐방 순서를 정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추천한 경로를 제시하자.
- ③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을 제시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안내해 준 이동 시간을 구간별로 나타내 주자.
- ④ 대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문구를 넣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구를 넣어 주자.
- ⑤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넣어 주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통편과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 주자.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백송이 △△ 마을을 지켜 주었던 긴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한옥에 대한 화제를 먹거리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 ③ ㉡: 지시 대명사 ‘뭐’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이동 소요 시간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인칭 대명사 ‘제’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44 ~ 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용 설명서 x +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mdlib.co.kr/exp02)

◆ 기기 사용 안내

(1) 무인 도서 대출

도서 검색 및 선택 → 회원증 인식 → 도서 찾기 → 대출 정보 확인

(2) 무인 도서 반납

반납 도서 인식 → 도서 투입 → 반납 처리 → 반납 정보 확인

◆ 유의 사항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대출이 제한됨.
- 훼손된 도서는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변상 처리해야 함(기타 안내의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참조).

◆ 기타 안내(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

야간 예약 대출    예약 대출 취소    훼손 도서 변상 처리

**회원 가입 바로 가기**

(나)

20XX년 X월 13일

창윤: 용주야, 너 혹시 우리 학교 도서관에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생긴 거 아니?

응, 나는 벌써 써 봤는데.

창윤: 나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어.

지난달에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회원 가입을 다시 하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몰랐어?

창윤: 내가 지난달에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어서 그 안내를 받지 못했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공유할게. 여기 보면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 돼.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창윤: 응, 고마워.

20XX년 X월 15일

창윤아, 회원 가입은 했니?

용주

창윤

응, 네 덕분에. 그런데 오늘 무인 도서 대출기로 빌린 책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책이 손상되었어. 이를 어쩌지?

손상된 책은 변상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용주

창윤

변상 처리?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데?

내가 전에 보내 준 사용 설명서 중 '기타 안내' 항목에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안내가 있어.

용주

창윤

13일에 보내 준 자료에 있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창윤

찾았다. 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지?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맞아, 거기 보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

용주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작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용 설명서는 특정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조작 순서가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 ④ 유의 사항은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 ⑤ 기타 안내는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정보를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하고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와 활용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